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논쟁: 세대 갈등에서 세대 게임으로!^{* **}

김 종 수

(경희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논쟁에는 전통적인 세대 연구의 방법에서 조망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전개되고 있다. 청년 세대가 세대적 주제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21세기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과거 전례가 없는 노년 세대의 정치적 부상과도 연관되며 표면적으로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세대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황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속적으로 암울하게 만들면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불신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6년 겨울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세대 갈등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부상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대 갈등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들여다 본다면, 누군가에 의해 조장되는 면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특정 사안들을 세대 프레임으로 보게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는 세대 게임 세력들이 현재 세대 갈등의 상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대 게임'의 양상을 대중들이 이해하여 세대 갈등 상황에 대해 주저하고 의심하면서 이성적인 냉정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시도하고 특정 세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적 분열과 혐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주제어 : 21세기 한국 사회, 청년 세대, 노년 세대, 세대 갈등,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 이 글은 2019년 5월 31일 서울 통의동 철학아카데미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갈등과 분열의 한국사회와 '공동체'의 재구성>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들어가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세대 논쟁의 앞자리에는 386세대가 자리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후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정치 일선에 등장하기 시작한 386세대는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 사회의 주류 교체론의 중심에 있었다. 뒤이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학생·노동운동 출신의 386세대가 의원으로 대거 선출되며 한국 정치계의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¹⁾ 나이 든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의 세대 간 권력 이동을 386세대의 활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분명하게 체험하였다.

386세대가 586세대로 불리고 있는 2019년 현재, 한국의 세대 논쟁에서 주목을 받는 세대는 일명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 세대와 “어버이연합”, “박사모”의 중심 구성원인 노년 세대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이 야기한 취업 전쟁 때문에 이전 세대와 다르게 생애 주기별 인생을 설계하기 힘들게 된 청년 세대의 삶의 조건은 “88만원 세대”라는 세대 명칭이 등장했던 2007년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무능함과 기성세대의 무지함을 비난하는 뜻을 담고 있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청년 세대의 대사회적 정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한편 사회의 부양 대상으로 여겨졌던 노년 세대는 청년 세대의 사회적 불만에 대한 구체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되며 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다. “혐로사회(嫌老社會)”, “약육노식(弱肉老食)”이라는 신조어가 표현하듯 21세기 한국 사회가 노년 세대를 대하는 멸시와 혐오의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응한 맞불집회를 통해 노년 세대의 정치적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성적 자아를 존중하는 분위기보다는 집단적 이해 관계에 따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

1) 박재홍, 『세대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경상대학교출판부, 2017, 115-116쪽, 참조.

롯된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에 친숙하다. “특정 집단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설명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과 이들이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갖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²⁾ 세대 개념은 현대 한국 사회처럼 급변하는 사회의 변동 요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요긴하다. 무엇보다 집단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에도 세대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과거처럼 ‘민족’으로 수렴되는 집단 정체성 논의는 세계화의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계급’을 중심으로 전개하기에는 이념적인 부담감이 강하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건장’하고 숙명의 무게를 덜어낸 세대는 말 그대로 한국 정체성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³⁾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세대를 따지는 연구에서 중요한 대상은 청년이었다. 1950년대 문학계에서 20대의 이어령이 「우상의 파괴」를 들고 나와 기성 문인들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나, 1960년 4월 혁명에서 “기성세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것도 청년들이었고, 앞서 서술했던 바처럼 새로운 정치계를 구축하려는 386세대 역시 청년이었다. 사회변동과 역사발전의 역동성을 낳는 요인 중 하나인 세대 현상에서 나이 든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특정 시점에서 함께 살아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주도권이 새로운 세대에게 넘어가고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재편성하게 된다. 인구학적 신진대사의 순환이 가져오는 사회변동은 필연적인 것인데, 부단한 인구 교체의 세대론적 함의는 “새로운 만남fresh contact”과 “망각to forget”의 순기능으로 이해된다. 젊은 층의 혁신이 가져오는 변동으로 사회는 “새로운 만남”을 가져오는 것이며, 기존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이들에게 익숙했던 문화 요소는 “망각” 속에 묻히게 되는 사회 현상으로 세대교체는 이루어지는 것이다.⁴⁾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2) 최선희,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19쪽.

3) 전상진,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2018, 296쪽.

4) 인구 교체의 세대론적 함의에 대한 것은 Karl Mannheim이 *The problem of Generation*(1928)에서 전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재홍, 앞의 책, 35-37쪽 참고.

이 갈등의 결과가 사회 변동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논쟁에서는 사회 변동 과정의 필연적인 세대 갈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로운 만남”의 주체인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적 의식에 대한 심도있는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엄연한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 세대를 세대적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구학적 세대교체 과정에서 “망각”의 사회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노년 세대의 정치적 부상도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연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과거에는 사례로 찾아볼 수 없었던 노년 세대의 정치 세대화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낯선 사건이고 그들을 정당한 정치 세대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불황 탓에 안정적인 사회 진입이 어려운 청년 세대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노년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세대 갈등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위와 같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독특한 세대 갈등의 문제는 현대 한국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조건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조화가 일차적인 원인일 것이다.⁵⁾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 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었다. 공적 연금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수급자 집단이라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⁶⁾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기에 빠져 있는 것도 세대 갈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는 요인이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한 지 10여년이 넘었고, 대기업 위주의 국가 경제정책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비정

5)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1.3명) 사회이자 2000년부터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후로도 상황은 심화되고 있어서 2018년 현재 출산율은 0.98%, 노인인구비율은 14.3%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 보도자료, 2018.9.27. 참고.

6) 박길성,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권 1호, 2011, 3-25쪽, 참고.

규칙을 양산하는 일자리 질의 약화와 같은 문제는 청년 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장에서 세대별, 특히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차지하는 기회 구조가 다른 점도 세대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⁷⁾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학적 조건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황과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갈등이 지나치게 첨예화되고 장기화되면서 불신과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 문제와 결부되면서 상대 진영을 공격, 고립시키기 위해 세대의 여타 구성원들의 동원을 극대화하려는 정치공학적 고려에 쉽게 연루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세대 간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갈등의 국면에서 “386세대는 친북 좌파, 노년 세대는 보수꼴통이라는 낙인찍기labelling는 상호 불신과 분열의 골을 심화시키고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해야 한다.”⁸⁾ 여기에는 그동안 세대 연구에서 진행했던 세대의 명칭, 범위, 속성을 탐구하는 작업과는 다르게 세대 담론의 소통 방식에 주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본고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대 논쟁을 2007년에 등장한 “88만원 세대”로부터 시작한다. 청년세대의 일방적 착취 구조로 이해되는 88만원 세대론이 제기한 문제가 12년이 지난 2019년 현재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세대 갈등의 정점을 알리는 “헬조선” 담론의 등장 배경을 따지고, 기성세대에 대한 적대감이 노년 세대에 대한 혐오로 진행된 과정을 상술하도록 한다. 그리고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정치세대화를 형성한 노년 세대의 사회적 조건을 들여다 본다. 이와 함께 정치적 효용에 조종되는 세대 갈등의 메카니즘을 “세대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논의를 통해 사회 분열과 혐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모색의 시도로서 최근 대중들에게 주목을 끈 영화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각 세대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7) 최유석,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한울, 2016, 17쪽, 참고.

8) 박재홍, 앞의 책, 138쪽.

II.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담론의 전개

1. “88만원 세대”론 – 세대 착취 구조의 정치경제학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대 초반 386세대에 의한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세대 논쟁은 정치적 갈등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 갈등은 사회변동 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될 수 있는 세대 갈등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2007년에 우석훈과 박권일이 쓴 『88만원 세대』에서는 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펼쳤던 세대 갈등의 양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10-20대가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세대 착취를 다루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세대 갈등을 촉발하고 그 갈등의 양상이 사회변동의 거시적 틀로 이해되기보다는 세대 간 착취에 따른 새로운 세대의 파멸을 예상하는 “88만원 세대” 논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적 불황이 지속된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2007년 한국 청년의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88만원 세대”⁹⁾라는 세대 명칭은 거대 기업들의 “독과점화가 강화”되어 “승자독식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의 절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88만원 세대와 함께 언급된 ‘패자부활전이 없이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세대’(승자독식 세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세대’(희망고문 세대), ‘짜워 이긴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배틀로얄 세대) 등 10-20대를 지칭하는 세대 명칭은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절망적인 미래를 단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있는 것이 『88만원 세대』의 내용이다. 10-20대 젊은이들이 지불해야 할,

9) 2007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약 119만원이고, 20대 임금 비율(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74%여서 당시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약 88만원으로 산출된다. “88만원 세대”는 이 같은 경제적 빈곤 상태에 빠진 청년 세대를 일컫는 것이다.

계층적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는 비싼 대학등록금과 저임금 착취를 당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신분적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20대들이 가져야 할 것을 앞 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성세대 독점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318마케팅”의 주 타겟으로서 10대들에게 가해지는 기성세대의 “세대착취 현상”¹⁰⁾은 심화되고 있다. 사회에서 자리잡은 기성세대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강화되는 독과점 현상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 없이 방치하여¹¹⁾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상황이 10-20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88만원 세대”의 세대 논쟁은 앞선 386세대와 달리 권력이 아니라 “취업 기회를 두고 벌어지는 세대 간 배분적 갈등”으로 이해되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세대 간 경쟁의 맥락에서 쟁점화함으로써 기성세대에게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법을 마련하도록 강하게 촉구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¹²⁾ 그리고 세대간 불균형을 둘러싼 적절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같은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치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는 의의도 지닌다. 『88만원 세대』는 해방 후 60여 년 동안 빠르게 전개해 온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10-20대 청년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청년 세대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를 절감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2007년에 『88만원 세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12년이 지난 지금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간행되던 시기에 한국의 국민소득은 2만 불에 도달(2006년)하였는데, 2018년 4분기에 한국은 12년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섰다.¹³⁾ 12년 동

10)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63쪽.

11) 『88만원 세대』의 저자들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청년 세대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2) 박재홍, 앞의 책, 102쪽.

13)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였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천349달러로 전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

안의 산술적인 경제 성장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88만원 세대” 논쟁이 벌어지던 2007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급 3,48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면 27,840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 66,800원으로 2.4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없고, 따라서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60쪽) 당시 저자들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채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사망 사고나 사고 발생시 배상 책임 때문에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 일이 여전하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형태여서 사고 시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배상까지 배달일을 하는 청소년이 감당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2016년까지 23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 환자 중 배달 오토바이 사고 환자 중 15.2%가 15-19세 청소년이었다.¹⁴⁾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¹⁵⁾,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문제¹⁶⁾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개미지옥에 있는 것으로 비유된 “고졸자나 여성비정규직의 경우”도 대졸자나 남성비정규직보다 더욱 심각한 경쟁 상태에 내몰린 채 위험한 근무 상황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한국의 청년들이 부 착한 절망적 사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88만원 세대“라는 세대 명칭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0-30대 청년들의 세대를 일컫는 말로 유효한 까닭은 문제제기 당시 제기되었던 세대 착취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12년 전 『88만원 세대』에서 10-20대의 미래 삶을 전망하면서 “공무

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 (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12년 만에 3만달러 고지를 밟았다.” - 『연합뉴스』, 2019.3.5.

14) 박보희, “한번은 무조건 다친다-목숨걸고 달리는 배달청소년들”, 『머니투데이』, 2018.12.07.

15) 대표적으로 2017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도중 기계에 목이 끼어 사망한 특성화고교생 이민호군의 예가 있다.

16) 대표적으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교체작업 도중 사망한 김군의 경우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24세 김용균의 사망 사고가 있다.

원 조직의 연공서열제는 20대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106쪽)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들어맞았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은 2011년 약 18만5천 명에서 2016년에는 약 25만7천 명으로 38.9%가량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 20대인 1990년대생을 “9급 공무원세대”¹⁷⁾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것은 “88만원 세대”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희망이 투영된 20대의 또 다른 세대 명칭이 될 것이다.

2. “헬조선” 담론의 등장과 노년 세대 비하의 심화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20대 청년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2007년 “88만원 세대”처럼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계속 양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태백”, “캥거루족”, “민달팽이족”, “낙타세대” 등 우스꽝스러운 신조어의 난무는 위기에 처한 청년 세대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대변한다.¹⁸⁾ 이 가운데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암시하는 신조어 “헬조선”은 2007년 제기된 세대 간 갈등의 국면이 2015년 그 정점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2015년 최대 유행어인 “헬조선”에는 근대 국가인 한국의 미개함을 국가의 무능함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신조어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무능력함을 비판하지 못한 채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담겨 있다.

“88만원 세대”가 10-20대가 처한 세대 착취적 구조의 정치경제학적 시선에 입각하여 형성된 담론이라면, “헬조선”은 청년 세대들이 기성세대에게 보내는 강렬한 적대감으로 형성된 담론이라는 점에서 세대 갈등의 정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88만원 세대나 삼포세대, N포세대와 같은 명칭은 청년 세대가 처한 경제적, 신분적 어려움을 기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명칭에는 표면적으로는 세대 갈등이 드러난다기보다 청년 세대의 자조적인 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옥을 뜻하는 영

17)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웨일북스, 2018. 10쪽.

18) 방희경·유수미, 「한국언론과 세대론 전쟁」,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015, 38쪽.

어 “Hell”과 한국의 전근대 국가명칭인 “조선”이 합쳐진 “헬조선”에는 적대적인 갈등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 2015년에 유행한 헬조선 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은 근대 사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무능함과 구성원의 의식이 모두 미개하고, 현재 청년집단은 취업 난민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착취 구조의 희생자로서 헬조선을 탈출하거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같은 헬조선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금수저로 태어나야 하며 흙수저들은 “노오력”을 통해 신분상승을 요구받지만, 이 “노오력”의 요구치는 무한하여 사실상 신분상승은 불가능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¹⁹⁾

2015년에 유행한 헬조선 담론을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것은 세계적인 K-POP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은 노래 <절여>에서는 “3포 세대 5포 세대 / 그럼 난 육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릴 싹 주식처럼 매도해 / 왜 해보기도 전에 죽여, 개넌 enemy enemy enemy”라고 노래한다. 사회의 주류세력이 청년 세대에게 보내는 무시와 멸시에 대해 청년들은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기 세대를 향해 “절대 마, 포기. you know you’re not lonely”²⁰⁾라며 연대의 손을 내민다. 또한 <뱀새> 같은 노래에서는 태생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제적 조건에서 비롯된 수저계급론을 들고 나와 “금수저”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뱀새” 신분인 “이 세대”는 “알바 가면 열정페이”에 희생되고, 회사에서 “상사들은 행패”부리는 이 사회를 두고 “이건 정상이 아냐/ 이건 정상이 아냐”라고 노래한다. 특히 “황새”에게 “아 노오력 노오력 타령 좀 그만 뒤”²¹⁾라고 비난하며, 현실불가능한 “노오력”을 강요하는 시대에 대해 반항한다.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리 없는 “노오력주의”, 물려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수저계급론”, 취업과 연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친구관계와 희망마저 포기한 N포세대와 같은 청년 세대의 절망적 처지를 함

19) 이우창, 「헬조선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사회와 철학』 32집, 2016. 110-111쪽 참고.

20) 방탄소년단, <절여>, <<화양연화>> part1. 2015.04.

21) 방탄소년단, <뱀새>, <<화양연화>> part2. 2015.11.

축한 신조어들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간주하는 헬조선과 함께 21세기 세대 논쟁의 중심어가 되었다.²²⁾

한편 헬조선 담론에 담긴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과 적대감은 “노년 세대”에 대한 비하와 혐오의 정서로 집중, 확장된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유행한 “혐로사회, 약육노식, 노인충”이라는 노인 혐오 용어가 한국에 소개되면서²³⁾ 한국에서의 유사한 세대 갈등이 경제되었다. 가뜩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적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인 한국²⁴⁾에서의 청년과 노인 간 세대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노년 세대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노인범죄, 자살, 노년 세대의 행태는 핵가족 형태에서 성장한 청년 세대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세대는 노년 세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기본적인 매너와 상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혐오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처해 있는 취업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늙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²⁵⁾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노인 혐오의 정서는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고착화되며 세대 갈등을 만성화한다. 또한 한국 전쟁과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생각해온 노년 세대는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상태에 빠지면서 심각한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2) 인용한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청년 세대들의 자기 규정 방식에는 비판적 유희가 담겨있다. “육포를 좋아하니까 6포 세대”라는 가사나 비유 자체부터 희화화되는 “뽕새”라는 단어에서도 풍기듯이, 이 세대는 희망없는 비판적 처지를 유희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세대를 절망에 빠뜨리는 기성세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3) 노인 혐오와 관련된 소개를 한 것은 2016년 2월 24일 방송된 JTBC 8시 뉴스가 대표적이다.

24) 이용권, “노인빈곤율 49.6%로 OECD 1위”, 『문화일보』, 2016.3.25.

25) 최셋별, 앞의 책, 229-231쪽.

3. 정치적 효용으로서의 세대론, 혹은 세대 프레임 벗어나기

한국 사회에서 노년 세대에 대한 혐오 정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급변하는 사회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적 소외를 겪게 되는 노년 세대에 관한 이해는 2016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전후로 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폭로되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박근혜를 옹호하고 나서며 맞불집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대다수는 노년 세대였다. 탄핵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 양상으로 번지던 것이 정치집단화된 노년 세대의 부상으로 탄핵 정국은 청년과 노년의 정치 대립, 세대 투쟁으로 비춰졌다. 탄핵 정국에서 맞불집회에 참가한 정치 노년 세대들은 그동안 노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갖게 된 고충과 사회적 고립, 노년 세대가 공통적으로 환기하는 1970년대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응집되는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²⁶⁾ 맞불집회에서 이들이 외친 구호가 “쿠데타”와 “계엄령”²⁷⁾이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들의 정치적 요구는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유지라고 할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강한 향수를 공통된 정서로 가지고 있는 노년 세대의 정치 세대화는 그간 자신들이 이룩한 사회적 공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무시에 대해 복수해주고 싶고, 경제적 빈곤의 불안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심리적 보상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기에 맞불집회 장소에 노년 세대가 언론이나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보인 편집병적 현실 부정, 시대착오적 사고, 억지스런 행동과 요구들은 청년 세대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공존하기 힘든 별종으로 받아들여지며 세대 간의 혐오와 적대의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학자 전상진은 탄핵을 두고 전개된 광장의 대립에서 정치적 사건에 처해 등장한 노년 세대의 정치 세대화를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세대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세대 갈등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촛불집회

26) 전상진, 『세대개입·세대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2018. 215쪽. 참고.

27) 이진옥, “계엄령이 뭐냐.. 맞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노컷뉴스』, 2017.2.12.

는 세대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임을 인식”(275)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년 세대의 정치 세대화를 바탕으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를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려는 전략과, 문제 해결에 힘쓰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 위해 반대세력을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전상진은 “세대 게임”²⁸⁾이라는 개념을 들고와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세대 게임”은 게임을 관장하는 플레이어가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세대 당사자들에게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 지자자의 환심을 사거나 어떤 세대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집단화된 노년 세대의 부상은 세대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활성화한 노년 세대의 분노와 배신의 정치 감정에 의한 것이다. 또한 21세기 한국 정치계에서는 진보세력이 청년친화적 세대 게임을, 보수세력이 고령자친화적 세대 게임을 선호하였다. “노무현 신화”가 전자의 예라면 “선거의 여왕 신화”는 후자의 전형적인 예이다.²⁹⁾

이처럼 세대 게임은 대중들이 당면한 문제를 “세대 프레임”³⁰⁾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으로서 대중들은 세대 갈등이라는 강렬한 불빛에 현혹되어 엉뚱한 곳만 주시하게 된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는 것에 만족할 뿐이

28) 세대 게임은 그에 참가한 사람들이 세대를 이뤄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활동과 게임의 판을 짠 집단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세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경쟁이나 싸움을 부추기는 움직임을 말한다. - 전상진, 앞의 책, 19쪽.

29) 전상진, 앞의 책, 252-254쪽.

30) 전상진은 세대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파울 바츨라비크 Paul Watzlawick의 우화를 가져온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다. ‘술취한 행인이 가로등 아래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 그를 돕기 위해 경관이 다가갔다. 행인이 찾는 열쇠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경관이 ‘여기서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 맞나’고 묻자 취객은 ‘아니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기는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둡고 안 보이면 못 찾는다’고 대답한다. 열쇠가 가로등이 비추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빛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어차피 찾지 못할 테니까.’ 전상진, 앞의 책, 22-23쪽. 참고. 이를 세대 갈등과 관련하여 본다면 사회 현안을 세대 문제로 해석하는 프레임이 가로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해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중심 갈등 중 하나인 세대 갈등³¹⁾은 세대 간의 극심한 분열과 혐오의 악순환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구조에서 비롯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혼란스러운 세대 갈등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을 근본적이고 이성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조장되고 부추겨지는 세대 프레임 속에서 대중들이 허우적 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산장이 지적하듯 세대 갈등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전개되고 있는 세대 갈등 상황에 대해 “주저하고 의심하면서” 정치적 효용에 조종되는 세대 게임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극단적인 세대 갈등이 야기하는 분열과 혐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성적인 냉정함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의 중심축으로 이해되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들여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낯날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변 속에서 미처 세대적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의 내면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구조 속에서 심각한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는 노년 세대의 심리적 상처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갈등이 야기하는 불신과 혐오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개봉된 몇 편의 영화들은 세대적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과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시대착오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노년 세대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버닝>(이창동, 2018)이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청년 세대가 자신들과는 처지가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유와 위선에 대해 폭발하는 분노를 그리고 있다면, <소공녀>(전고운, 2017)는 심각한 거주난을 겪는 청년 세대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31)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한 조사에서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사회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하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계층 갈등의 경우 3/4, 이념 갈등과 노사 갈등의 경우 2/3, 세대 갈등의 경우 1/2에 달했다. 기존 사회 갈등과 달리 세대 갈등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 노대명, 「미완의 민주주의와 사회권의 위기」, 『지역과 전망』 22, 2010, 63-108쪽. 참고.

의 취향을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삶을 희망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들은 서울로 대표되는 도심의 세계에서 밀려나거나 기생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곤궁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청년 세대의 심리적 불안의 개연성을 묘파하고 있고 그들의 희망이 부의 축적보다는 취향의 존중이라는 개성적인 면모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죽여주는 여자>(이재용, 2016)는 병에 시달리며 죽음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노년 세대의 무기력하고 비참한 노후를 그리고 있고, <미스 프레지던트>(김재환, 2017)는 빈곤한 삶에서 국민을 구출했다고 믿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강한 흠모와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견디고 있는 노년 세대의 정서를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살지만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거주하는 노년들이 노후에도 연명하기 위해 몸을 팔거나 죽음을 앞둔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고, 노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국가적 단합의 열정을 회상하며 현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노년의 욕망이 정치적 세력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 나가면서

개인의 개성적 면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집단적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시기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설명해 온 것에 친숙하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세대 연구는 세대의 명칭, 범위, 특정 세대의 속성을 탐구하면서 현대 한국의 변화상을 규명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민족’으로 수렴되는 집단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세계화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계급’으로 설명하기에는 이념적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근대 유럽에서 세대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카알 만하임이 주장하듯이

인구학적 신진대사의 순환이 가져오는 사회변동은 필연적이며 구세대와 신세대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갈등 역시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사회의 세대 논쟁은 전통적인 세대 연구의 방법에서 조망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전개되고 있다. 청년 세대가 세대적 주체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21세기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과거 전례가 없는 노년 세대의 정치적 부상과도 연관되며 표면적으로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세대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황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지속적으로 암울하게 만들면서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불신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6년 겨울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세대 갈등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부상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대 갈등을 냉철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들여다 본다면, 누군가에 의해 조장되는 면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특정 사안들을 세대 프레임으로 보게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는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이 현재 세대 갈등의 상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대 게임’의 양상을 대중들이 이해하게 될 때 사회적 분열과 혐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21세기 한국 사회는 모든 세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는 피로사회이다. 대학 입시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은 발달한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많지 않고, 20-30대 청년들은 경제적 불황에 따른 취업난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잃어가는 ‘N포 세대’가 되었으며, 직장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는 40-50대는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 60대 이후 노년들은 사회적 소외와 배제의 분위기 때문에 심각한 박탈감과 비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피로하고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예민하여 자신들의 불안과 원한을 다른 세대에게 투사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위안하고자 하는 생리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대 갈등 상황에 대해 주저하고 의심하면서 이성적인 냉정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특정 세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고문헌

- 노대명, 「미완의 민주주의와 사회권의 위기」, 『기억과 전망』 22, 2010,
박길성,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권 1호, 2011.
- 박보희, “한번은 무조건 다친다-목숨걸고 달리는 배달청소년들”, 『머니투데이』, 2018.12.07.
- 박재홍, 『세대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경성대학교출판부, 2017.
- 방희경·유수미, 「한국언론과 세대론 전쟁」,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015.
- 우석훈·박권일,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 이용권, “노인빈곤율 49.6%로 OECD 1위”, 『문화일보』, 2016.3.25.
- 이우창, 「헬조선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사회와 철학』 32집, 2016.
- 이진옥, “계엄령이 뭐냐... 맞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노컷뉴스』,
2017.2.12.
-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웨일북스, 2018.
- 전상진,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2018.
- 최셋별,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
판문화원, 2018.
- 최유석,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한울, 2016.

❖ ABSTRACT

Controversy over the gener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from “generational conflict” to
“generational game”

Kim, Jongsoo
Kyung Hee University

The ongoing generational debate in Korea is problematic in that new problems are currently unfolding that have yet to be examined by the traditional methods of generational research of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n Korea's economic situ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younger generation cannot properly establish itself as a generational subject, which is partially due to the unprecedented political rise of the older generation. In addition, on the surface, the conflict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generations appears to be escalating. The levels of distrust and disgust between the younger and the older generations are becoming serious as the prolonged economic slump continues to point to a bleak outlook for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generational conflict has emerged as a major conflict in Korean society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the winter of 2016. However, if we examine the current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in a sober and rational way, we find that it is being encouraged by certain voices. Above all, the generation of game players with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are attempting to frame certain issues as generational issues and amplifying the current generational conflict.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is aspect of the "generational game" and to have a rational, cool-headed approach that involves hesitating and questioning the situation of the generational conflict. In addition, creating interest and understanding for a specific generation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generations will serve as the first step toward breaking the vicious cycle of social division and disgust in Korea.

Key Words :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Younger Generation, Older Generation, Generational Conflict, Generational Game, Generational Flame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

